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하반기 사랑방성서모임을 지난 주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성서일기 쓰기와 방별로 모이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 교단 총회를 위한 헌금은 오늘까지 합하여 전달하겠습니다.
-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 40 - 37 호

2023년 9월 10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결혼 기념)
이운순 · 정연갑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결혼 기념)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시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어느 한 이야기

한 교수가 강의 도중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기를 한 사람으로 세어야 하는가? 아니면 두 사람으로 세어야 하겠는가?”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머리가 둘이라 할지라도 몸이 하나라면 한 사람으로 세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머리 하나를 한 사람으로 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둘이어도 몸은 하나이니 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머리가 두 개여서 서로 다르니 두 사람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이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을 내렸다고 합니다.

“만약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한쪽 머리도 비명을 지른다면 한 사람일 것이고, 다른 쪽 머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있다면 이것은 두 사람인 것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는 이 이야기 맨 앞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교수가 ‘민족’에 대해 강의를 하는 중에’

이야기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야말로 민족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민족, 한 몸, 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어떻게

게 하는 것이 한 몸에 속해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글입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데 힘을 쏟았던 에스라, 성벽 재건을 위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야 했던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개까지. 이스라엘의 재건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는 중입니다.

이들은 탈무드가 전해준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다른 머리에 뜨거운 물이 부어졌을 때 같이 아파하며 소리를 지른 머리일 것입니다.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포로로 잡혀가서 물론 힘들었지만,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그 고통을 느끼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무너진 성전과 이스라엘의 성벽을 보며 심지어 소식만 듣고도 주저앉아 우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다른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에 귀 기울이고 같이 아파해 주고 있나. 신앙 공동체의 어려운 여러 사정을 들으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울었는가. 혹 옆머리에 뜨거운 물이 부어지고 있는 데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나 몰라라 무반응으로 있는 것은 아닐까.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야기하는 우리인 만큼 더욱 다른 지체들의 어려움에 함께 아파하며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한 백성, 한 민족임을 더욱 확인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주간의 말씀

“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
<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49 331 / 208

기도 :

성경 : 느헤미야 12장

제목 : 이스라엘이 성벽 봉헌식을 하다.

1. 1-23 포로에서 귀환한 제사장들의 계보

해석: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의 관계를 정리했다.

적용: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의 관계를 정리하자.

2. 24-26 다윗왕 때부터 레위사람에게 맡겨진 일을 하다.

해석: 회복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적용: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27-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봉헌식을 하다.

해석: 하나님께 드릴 때는 깨끗하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해야 한다.

적용: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회개), 함께 기뻐하고 멀리 퍼지도록 하자.

44-47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우다.

해석: 헌납물은 성전의 창고에 있었다. 그 목적대로 쓰여야 한다.

적용: 1)하나님께 드린 것(헌금, 헌물)은 그 목적대로 쓰여야 한다.

2)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자.(고마워하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난, 매주 금 토 일, 3일 동안 외손주들과 놀 수 있다. 지난주에는 손주들이 열감기에 걸려 못 왔는데 이번 주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에 놀러 온다고 하여 무척 기다려진다.

소고기 푹 삶아 계란을 넣고 장조림을 하고, 둥근하게 호박, 당근도 볶아놓고, 슴슴하게 된장국도 끓여 놓는다. 혹시나 손주들이 먹어줄까 하여 어린 열무를 뜯어 물김치도 담아놓는다. 방아깨비, 사마귀도 잡아 유리병이 넣어놓고, 달팽이도 보여주려고 찾아본다.

손주들 보여주려고 목화를 심었다. 분홍꽃이 피고, 단단하게 열매도 맺었다. 이 열매에서 목화솜이 나오면 솜으로 옷을 짠다고 말해 줄 거다.

두 달 전에 얻어온 병아리가 닭이 되어 '꼬끼오' 하고 큰 소리로 잘 운다. 한 달 후면 따끈한 달걀을 낳을 것이고 손주들에게 만져보게 하고 생달걀도 먹여줄 것이다. 오리 새끼도 두 마리 데리고 왔는데 큰 집오리가 되었다. 연못에서 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흐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매우 기쁘고 신이 난다.

아버지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실 것이다. 매 주일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아버지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저의 성품이 예수그리스도의 성품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닳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랑스런 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린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편 126 : 1-3, 5-6
9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8 : 11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384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야고보서 5 : 7-11
429
“참고 견딘 사람은 복 됩니다” 권재만 목사

설교자
미리내사랑방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주님의 사랑이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312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 전선희 김화인/ 봉헌위원 : 이어람/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이예은 김보경 진시우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를 고이 보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닮아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참고 견딘 사람은 복 됩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오늘의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는 ‘인내’입니다. 참으라는 말이 5번 반복되었으며 인내라는 말로 한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서로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조상들의 본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여워하시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시다 말씀합니다.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 성경에서 인내는 참는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인내를 생각할 때 구약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십니다. 예언자들과 욥은 하나님과 같이 참과 견디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두르지 않으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참고 견뎠습니다. 또한 만나는 사람들을 인내로 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며 인내의 열매를 맺읍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강춘자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인천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폭염예보가 뜰 만큼 무더운 날씨였는데 우리 꾸러기들 짜증내지 않고 씩씩하게 잘 지내다 왔습니다.

자유공원, 역사문화의 거리, 차이나타운, 연안부두를 부지런히 걸어 다니며 개항지 인천에 남겨져있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문화를 엿보고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 공갈빵 등 중국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자유를 찾은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숙소 바로 앞에 '꿈꾸는 뿔'이라는 인형극카페가 있어 걱정인형을 만들고 인형극 '돌이의 삼년고개'도 관람했습니다.

아홉 명의 꾸러기들 모두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다 왔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아파서 같이 여행을 못간 이어람 선생님의 빈자리를 권하성 권하온 어머니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정말 큰 힘이 되었고 귀한 섬김 덕분에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가 여행을 떠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로 인해 어린이들에게 추억들이 쌓여갑니다.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사랑방공동체의 어른신들을 만나는 추억이 특별합니다.

이번 학년별 여행에서도 서울에 갔던 5, 6학년들이 교회의 장로님들과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5학년이 동대문 애완동물 거리를 갔다가 갑자기 사랑방서원에 물려갔습니다. 연락드리지도 않고 불쑥 찾아갔음에도 홍삼성 장로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셨고 유난히 더웠던 첫날 일정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학교를 위해 매일같이 헌신해 주시는 홍정길 장로님께서 6학년들을 맞이해 주셨으며 여러 도움을 주셨고, 한강을 가는 여행길에 이린이와 함께 오셔서 배웅도 해 주셨습니다. 또한 6학년이 광화문을 갔다가 차현주집사님 계시는 카페에 찾아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어린이들은 학교라는 한계를 넘어 공동체라는 울타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 교사 : 권재만 >

멋쟁이학교

멋쟁이학교가 본격적인 생활을 시작한 첫 주간이었습니다. 학기의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중요한 시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첫 멋쟁이학교, 공동심화학습, 열린수업 모두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공동심화학습은 세계로 시야를 넓히도록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열린수업은 전통적으로 기본교육과정인 [멋쟁이교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작을 의미깊게, 또 씩씩하게 적응하는 것 같아 참 좋습니다.

수요일에는 6학년들이 9월 모의고사를 보았습니다. 진로를 준비하는 가운데 학교생활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사뭇 기특합니다. 긴장과 초조함을 잘 견뎌내고, 충실한 하루하루를 이뤄내도록 격려해주세요. 금요일에는 멋쟁이총회를 열어 2학기를 섬겨줄 회장(김지우)과 부회장(정이안)을 새롭게 뽑았습니다. 새로운 학생회와 함께할 2학기가 멋질 것 같아, 많이 기대됩니다.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더위와 쌀쌀함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기증세를 보이는 멋쟁이들이 꽤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모두 건강을 잘 유지하며 생활하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아빠 김치

우리 집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꼽으라면 단연 첫 번째는 할머니가 보내주신 김치일 것이다. 할머니 김치로 만든 김치찌개와 김치볶음밥도 좋아한다. 민용이는 학교 수업시간에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시를 쓰는데 주제가 '할머니 김치'였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런 우리 집에 비상사태가 생겼으니... 두 달 동안 남편이 미국에 가는 바람에 시댁에 한 번도 못 갔고, 그리하여 김치가 떨어지고.. 김치찌개는 꿈도 못 꾸고 있었다. 그 때 남편이 미국에서 돌아오면 서 김치 레시피를 가져왔다고 한다. 갑자기 웬 미국 김치? 엄마, 김치는 한국 음식 아니야?" 라고 물어본 아이들 말처럼 의아 했다.

이번 멋쟁이학교 4학년 학생들의 해외문화체험을 인솔해서 방문한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장로님 가정, 그 가정에서 담아먹는 김치 레시피는 배추 세포기당 절이는 소금이 몇 그램인지 부터 자세하게 적혀있었다. 시어머니의 젓갈 조금, 소금 적당히..처럼 애매모호한 레시피가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양념 정보에 당장 가서 배추 세포기를 사왔다. 배추를 사놓고 하던 일이 있어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남편이 이미 배추를 다 썰고 소금에 절여 놨다. 무게를 재보니 미국 배추보다 한국 배추가 좀 작아서 짤 수도 있겠다고 한다. 그리고는 내가 꺼내주는 재료 하나하나 무게를 제더니 양념을 만들어 버무렸다. 맛을 본 아이들이 아빠 김치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이제 김치는 할머니 김치에서 아빠 김치로 넘어갔다.

두 달간의 미국생활을 마치고 와서 어느 날 혼자 잔뜩 장을 봐 온 일도 있었다. 평소에는 사지 않는 재료들이었는데 주방에서 푹푹푹 하더니 알리오올리오 스파게티와 토마토바질샐러드를 선보이고, 어느 날 아침엔 미국에서 맛있게 먹었던 샌드위치를 해주었다. 사진을 찍어서 주변에 자랑을 하니 '미국 갔다 오길 잘했네' 하신다. 남편이 내년에 한 번 더 가면 어떻게 될까....혼자 한번 상상해 봤다

디아코니아사랑방 노미현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250, 539, 393

성 경 : 누가복음 22장 18장 1-8절

말 씬 : 낙심말고 늘 기도하라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한국의 교육을 위해>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전국의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름 붙이고 전국 각지에서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 땅에 올바른 교육들이 세워지도록.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19일(화) 총회가 열립니다. 하나님 뜻을 잘 이뤄가는 모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꾸러기/어린이학교 여행

2) 우리 중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3) 방모임의 새 시작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드디어 배추모종을 심었습니다. 멋쟁이들과 함께 밭을 만들고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아침기도 후 모여 배추를 심었습니다. 조금 늦어진 상황이라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듬뿍 담아 심었습니다. 김장 때까지 잘 돌봐서 김장도 무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너무 무성히 자라서 전지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가꾸는 손길이 더욱 절실할 때입니다.

< 장영미 전도사 >